

# 상아탑 만난 DMZ, 세계적 관광명소 부푼 꿈

# 경주이씨 화수회 청년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 경기도 “좋은 아이디어, 정책에 바로 반영”

평화와 생태의 보고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할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난 15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 따르면 DMZ를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포지셔닝 하기 위한 IMC 전략을 주제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지역예선

이 전국 90개 대학 544개 팀 2,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도는 참가팀들이 기존의 DMZ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콘셉트 개발, 안보관광 위주의 아이টে에서 벗어나 평화·생명·소통의 공간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다른 관광상품과 차별화하는 방안 제시, 모바일, SNS 등 신매체에 접목하는 색다른 전략

등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펼쳐진 이번 지역예선에서는 사전심사와 지역별 서류심사를 거친 54개 팀 중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전국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됐다.

국내 유수의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심사위원들은 엄정한 심사와 후배 예비광고인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으로 참가학생들과 참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 담당자는 “이번 지역예선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는 앞으로 DMZ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전국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실무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 최종 우승자는 오는 9월 22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가려진다.

(경기 김영배)

## 이필우회장 종친간 화합단결 당부



종친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경주이씨 화수회 청년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19일 영동군 체육관에서 1천여 명이 가까운 화수회원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필우 중앙화수회장(재경총북회 협회장)을 비롯해 이용희 전국회 부회장, 정구복 군수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필우 중앙화수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종친간에 화합과 협력단결을 위

해 마련한 이등우 청장년 회장을 비롯한 일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높이 치하 한다”고 밝히고 “체육대회로 인한 종친간의 화합 단결 된 모습을 볼때 크게 자랑스럽다”면서 전국 400만명의 화수회 종친들과 함께 더욱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필우 회장은 현재 재경총북회 회장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총동문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충북 박희상)

# 한건복지재단 노인 해외관광 실시

이종운 청원군수, 감사패로 위문



중국 용경협 해외문화 탐방단의 기념촬영 모습.

현재 충북도내에서 100억원이라는 최대의 목표로 설립한 (사)한건복지재단(이사장·이상훈)이 총 50억원으로 증액되어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건복지재단은 지난 2003년 도에 김경배 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한국종합건설대표이

사)이 당초 20억원으로 시작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 것이 지난 5월 말 현재 50억원으로 증가되어 도내 소외계층을 비롯한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급 그리고 고령층의 노인들에게 해외 관광으로 해마다 위로해 주는 효성을 베풀어 주고 있다.



이종운 청원군수(사진 오른쪽)는 민경국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한건복지재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용경협 중국문화 탐방을 실시, 가볼만한 관광지를 찾아 위로 격려해주는 한편 이들 61명 노인 중 13명이 여행 중 질투를 맞아 풍성한 칠산잔치도 베풀어 주어 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민경국 재단 사무총장이 직접

인솔하여 아무사고 없이 돌아온 데 대해 이종운 청원군수는 관내 노인들에 이같이 뜻이 배풀어 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민경국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김경배 회장은 사업에 매진하여 100억원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 박희상)

# (사)재경총북협회, 지명직 부회장 8명 선임

밝고 맑은 웃음터지는 협회로 기여해 주길 당부

“우리는 향토사랑에 앞장서고 서로칭찬하고 먼저 돕는 향우회 정신을 발휘하여 재경 70만 향우회원들은 물론 175만 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정관에 따라 사단법인 재경총북협회장류의 지명직 부회장으로 선임된 8명의 부회장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명직 부회장으로는 전 충청일보사 편집국장장을 역임한 이재준씨를 비롯한 전 대한씨

름협회 회장을 지낸 최창식씨 그리고 현대한장애인협회중앙회장인 신용식씨 등 사회지도층인사 8명이 기용됐다.

임명권자인 이필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임명된 지명직 부회장들은 앞으로 원로고문회원과 각 시군 향우회장(선출직) 그리고 재경 전 회원들과의 따뜻한 호흡으로 정중한 자세로 서로 존경하면서 맑은바자책에 충실하여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밝고 맑은 웃음터지는 협회

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선임지명직 부회장들은 추후도 협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전 도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협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명직 부회장은 다음과 같다.

▲이재수, 이상, 최창식, 정구종, 박희상, 신용식, 민병일, 이재준(무순)

(충북 박희상)

# 의왕시 교통으뜸도시된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구축사업 오는 29일 마무리

의왕시가 교통으뜸도시로 확 바뀔 전망이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우수한 도로교통망을 갖춘 반면, 제반 교통 인프라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최첨단 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 안전, 편리, 신속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망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의왕시가 총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구간별 교통소통 정보를 도로전광판, 인터넷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왕시 광역교통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오는 29일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연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96개소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버스 도착시간 안내를 비롯 생활정보 제공, 시정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운행정보 안내시

스템(BIS)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밖에도 의왕시는 낡고 오래되어 이용이 불편한 버스승강장 121개소를 대대적으로 교체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버스승강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시책 발굴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으뜸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김영배)

# 압해도 공룡알 화석 발굴지 주변 지질 퇴적층 기초자료 조사 실시

목포시(자연사박물관)가 압해도 공룡알 화석 발굴지 주변 지질 퇴적층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2009년 9월 목포시와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가 공동

으로 서남권 환경 지질 조사 중 발굴된 국내 최대 규모 육식 공룡알동지 화석과 관련하여 인근 유사 지층에 추가 발굴 가능 지역 정밀 조사를 위해 화석 발굴지 및 주변 서남권 퇴적

층에 대한 지질환경분석 등 기초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육식 공룡동지 화석 발굴지 및 주변 50m 퇴적층 일대는 이미 땅 소유자의 개인 건축물 및 지 조성되어 완료가 발굴조사 당시 존재하던 퇴적층은 신속공사로 인해 모두 제거 되어 개인식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9년 발

굴 당시 참여한 지질 전문가로부터 발굴지 퇴적층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화석은 존재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인근 주변 지층에 대해서는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와 지질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조사로 추가 학술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 이석호)

## 전기공급약관 개선 시행 '더 편리한 전력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합니다.

- 전기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공
  - 저압공급 범위를 499kW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권익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시 피해배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고압고객에게 공급하던 예비전력을 고객 희망시 저압고객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임차인 명의로 고객)이 희망하고, 신용이 우량한 경우 보증조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 미래대응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
  -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의 전력시설 설치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전기사용계약의 중요사항(용도, 계약전력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300kW이상 500kW미만 산업용전력 저압 고객은 산업용전력(갑) 저압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
  - 계절변경시 중간검침대상을 확대(1,000kW이상 → 원격검침 고압고객) 하였습니다.
  - 임시전력의 사용기간을 정해지지 않은 일정기간에서 2년 이내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한 연체료 요율을 타 공공기관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종별 적용기준(업무시설 사용고객은 일반용전력, 주거로 사용고객은 주택용전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전력 1kW미만 가로등(갑) 고객의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상담 : 국번 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MKE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한국전력 www.kepco.co.kr